“근대 제주불교 김석윤, 승적·이력 전부 허위”

혜달 스님, 대행선硏 ‘한마음연구’ 제16집서 주장

승적부, 복수 필체 확인되고
가필 뚜렷해…기입도 불완전
결혼 후 1894년 출가 ‘불가능’
“부인 4명에 아들 · 딸 8명 둔
보천교 및 강증산계 미륵교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제주불교사와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김석윤’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김석윤을 ‘승려’이자 1909년 제주의병 운동의 ‘의병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김석윤의 승적부는 허위여서 승려가 아니며 의병장이 아닌 참여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사진〉은 대행선연구원 발간 학술지 〈한마음연구〉제16집에 발표한 ‘김석윤의 승적 진위와 종교적 정체성 고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혜달 스님은 김석윤의 승적과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승적부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록, 일제 사법기관 문서, 일제 공기관 문서 등 7건의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김석윤의 승적부(대흥사본)는 총 2면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1면과 2면의 필체가 다르고 가필(加筆)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인증 연월일이 없는 등 기입이 불완전한 미인증 문서라는 게 스님의 분석이다.

김석윤이 1894년 7월 15일 득도 및 사미계를 수지하고 1938년 3월 25일 도첩을 받았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혜달 스님은 허위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1894년 출가’가 불문(佛門)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면 하루 동안 득도와 삭발, 사미계 수지가 이뤄졌고 도첩은 44년이나 지나 수령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김석윤을 출가한 스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혜달 스님은 당시 제주도의 성혼기를 분석하고 김석윤이 17세였던 1893년을 전후로 첫째 부인과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의 출가를 부정했다. 실제 김석윤은 네 명의 부인에게서 아들 4명, 딸 4명을 뒀다.

스님은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1910년 이전 한국불교계에서 대처식육은 용인할 수 없는 파계였고 1920년대 후반 들어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김석윤은 1890년대부터 부인이 있었고 1907년에는 장남도 태어난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선불교 제도권의 수계제도를 준용하면 김석윤의 ‘1894년 출가’, ‘관음사 창건과 함께 관음사를 근거로 한 승려활동’은 억설이자 사실 왜곡이며, 승적부의 출가는 허위”라면서 “김석윤이 1949년 사망하기까지 승려 신분이 지속됐다는 주장은 승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혜달 스님은 김석윤의 종교 정체성 역시 불교가 아닌 ‘보천교 및 강증산계 미륵교’임을 주장했다. 보천교가 발행한 〈보광〉 창간호에는 1923년 4월 23일 보천교 제주 진정원(일종의 교당) 개원식이 열렸고 이곳의 전 의사장이 ‘김종화’임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화’는 김석윤의 이명으로 그는 보천교 제주 진정원의 관리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석윤의 동생이 지은 ‘망형석성도인행록’ 등 일련의 기록에도 김석윤이 보천교와 강증산계 미륵교 신자로서 포교하고 항일운동 모의를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1909년 제주의병을 김석윤이 의병장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혜달 스님은 당시 경찰 기록과 〈제주항일독립운동사〉를 근거로 반박했다. 기록에 따르면 1909년 제주의병의 의병장은 고승천·이중심으로, 특히 고승천은 김석윤 등과 더불어 광양에서 대장간을 차려서 무기를 제조했다. 김석윤은 10인의 창의자에 포함된 인물이었지 의병장은 아니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혜달 스님은 “봉려관을 비롯해 근대 제주 승려들의 승적부 이력은 허위 기재가 심해 교차 검증은 필수”라며 “그런데도 김석윤의 승적부 이력은 교차 검증 없이 사실로 인정해 그를 제주 불교의 중요한 승려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어산어장 인묵 스님 범음의 진수 만난다

4월 11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범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묵 스님은 4월 11일 오후 3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범음-찰나의 궤적’을 개최한다.

인묵 스님은 “고희가 된 세납에 출가 후 50여 년을 닦아 온 범패와 작법을 후학들과 함께 펼쳐보이고자 한다”면서 “자랑스러운 불교 예술의 진수를 꽃피우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예능보유자 일응 스님에게 범패를 배운 인묵 스님은 어산작법학교 초대학교장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불교의례 한글화에도 기여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명상학회 제1차 정례회

4월 19일 숙명여대 음대서

(사)한국명상학회는 4월 19일 숙명여대 음악대학 강의실 103·104·105호에서 제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마음챙김과 예술: 예술과 명상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음악, 미술, 신체 동작의 예술 활동을 통한 몰입과 통찰로 마음챙김의 확장적 경험을 제시한다.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는 노인규 온담 예술심리상담연구소장의 ‘음악과 함께하는 호흡과 심상 경험’에서는 바이올린, 신디사이저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하게 하며 명상을 체험한다. 음악, 미술, 신체 동작의 경험은 참가자들이 선택하면 된다.

이번 정례회는 (사)한국명상학회 수련 7시간이 인정되며 참가비는 회원은 6만원, 비회원 9만원이고, 학생(학부, 대학원생)은 30% 할인된다. 한국음악치료학회, 음악교육심리상담학과,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 회원도 30% 할인이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다.

신중일 기자

기자·아나운서가 함께 만드는 ‘시절인연’

BBS불교방송 봄맞이 개편
‘수행자들’ 등 새 프로그램도

기자와 아나운서가 함께 특별한 인연담을 전하는 토크쇼가 새롭게 방영된다.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 이하 불교방송)은 “4월 6일부터 2026년 TV 프로그램 봄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불교적 지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자와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기대를 모은다. 정영석 보도국 기자와 오승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시절인연’(연출 이수종 PD)은 4월 7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만나야 할 인연은 언젠가 결국 만나게 된니다’를 모토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불교방송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방송이 새로 선보이는 토크 프로그램 ‘시절인연’의 진행자 정영석 기자(왼쪽)와 오승진 아나운서.

첫 게스트로는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참여해 진솔한 인연담을 전할 예정이다. 정 기자는 “처음 진행을 맡은 정규 프로그램이라서 긴장도 많이 된다”면서도 “다양한 계층·연령대의 인물들과 시절인연을 맺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대인의 고민을 데이터와 불교적 통찰로 풀어보는 신개념 멘탈 케어 토크쇼 ‘성진 스님의 번뇌연구소’가 4월 6일 오후 4시에 첫 방송된다. 데이터 맹신론자인 ‘닥터 킴(김명석 아나운서)’과 귀여운 AI 어시스턴트 ‘닥터 보리’가 차가운 통계로 번뇌를 진단하면, 마음 멘토 성진 스님이 따뜻하고 날카로운 지혜로 반전 처방을 내린다.

뇌과학과 경전의 만남인 ‘원빈 스님의 붓다 연대기’는 4월 6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성도부터 열반까지 45년의 세월을 연차별로 정리한다. 원빈 스님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역동적이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경전을 기반으로 세밀하게 추적한다.

수행이라는 본질적인 행위가 우리 삶에 주는 위로와 통찰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끌어낸 ‘수행자들’은 4월 6일 아침 8시 20분에 첫 전파를 탄다.

불교방송은 “이번 봄 개편을 통해 불교 콘텐츠가 가진 강점인 인문학과 교양을 확대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한국불교 중심 채널로서 한층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세계유산 팔만대장경 전승 방안 논한다

4월 9일 해인사 보경당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9일 보경당에서 ‘팔만대장경, 그 찬란함’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역사·과학·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계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려시대 몽골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성된 팔만대장경의 정신과 의미를 학술적으로 살피고, 미래세대를 위한 계승·활용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팔만대장경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이어 △팔만대장경 조성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해인사의 역할(신은제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상임연구원) △800여 년을 견딘 팔만대장경 판재의 과학적 특성(서정욱 충북대 목재·종이학과 교수) △경판에 새겨진 각수(刻手)의 전승과 계승 발전(최연주 동의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팔만대장경의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방안 모색(김상헌 상명대 역사컨텐츠학과 교수)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박용진 국민대 교수, 위광철 한서대 교수, 석혜영 경북대 강사, 조영훈 공주대 교수가 나선다.

종합토론 후 참석자들은 해인사 장경도감 판각학교와 팔만대장경 DB 구축 사업 현장도 참관할 예정이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은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혜가 담긴 인류 공동의 기록유산”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가치, 미래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해인사가 주최·주관하고 조계종과 국가유산청, 경상남도, 합천군이 후원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